

## 회장단 동정

**[한국의 CEO]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  
**“변화만이 살길” 급성장 밑거름**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3년 동안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 착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요타가 포드를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위기의식속에 끊임없이 혁신하는 조직 문화 때문입니다.”(2004년 2월 월레사)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은 입사후 줄곧 “변화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지구상에 살아남은 생물은 강한 자가 아니라 환경에 잘 적응한 자”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소신은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위기의식과 혁신을 강조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결국 삼성전자의 급성장으로 이어졌다.

윤 부회장이 총괄 사장으로 부임하던 1997년과 올 상반기를 비교해보더라도 삼성전자 매출액은 18조 5,000억 원에서 29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삼성전자는 현재 전체 시가총액의 19.8%, 수출의 16.68%를 차지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대표기업이다. 연구개발(R&D) 비용만해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기업 R&D 비용의 40.1%(3조 5,294억 원)에 이르고 있다.

해의 호평도 잇따라 영국 경제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선정한 ‘존경받는 세계 기업’에 국내 기업 으로서는 유일하게 32위에 올랐으며, 이 중 전기·전자 부문은 GE, 지멘스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에서는 이 같은 평가와 관련, 스스로를 ‘혼란 제조기’로 일컬으며 인력의 3분의 1을 줄이고 손실을 기록하는 사업부문은 과감히 매각해 자사를 초우량 기업으로 키워낸 윤 부회장의 경영방식이 기반이 됐다고 강조한다.

특히 “초일류는 미래를 창조하는 자만이 만들 수 있다” “아날로그 시대의 인제는 성실하고 말 잘 듣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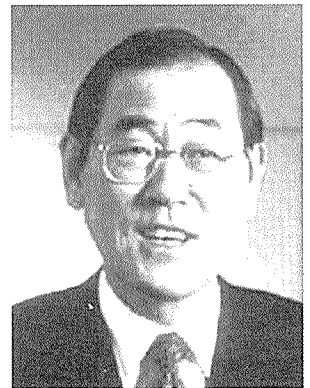
이지만 디지털 시대의 인제는 창의력과 스피드를 갖춰야 한다” 등 윤 부회장이 때마다 강조하는 미래의식은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안주할 틈을 주지 않는다는 평가다.

고 이병철 회장 때부터 TV·VCR 등 전자사업 현장을 지킨 윤 부회장의 이같은 경영자질은 비서실 경력을 거치지 않고도 그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구조조정위원회의 좌장을 맡고 있는 데에서도 쉽게 엿볼 수 있다. 그는 이견회 삼성그룹 회장의 ‘선문답’식 지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 “과학기술정책 대안 제시” 윤종용 공학한림원 새 회장

윤종용(尹鍾龍·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한국공학한림원의 새 회장에 뽑혔다.

공학한림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제15차 정기총회를 열어 윤 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이정호(李廷浩) 전 LG석유화학 사장, 조정남(趙政男) SK텔레콤 부회장, 권욱현(權旭



鉉) 서울대 교수, 김수삼(金修三) 한양대 부총장, 손욱(孫郁) 삼성인력개발원장 등 5명을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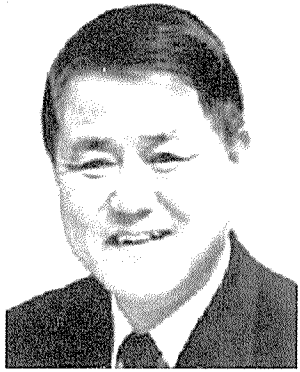
윤 부회장은 회장 선출 후 “공학한림원이 국가 최고 공학기술인 모임으로서 건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사회를 잇는 다리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뛰는 기술경영인들의 애로사항과 산업 발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한림원이 산업계와 학계간 협력과 교류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부회장은 또 공학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가 진정한 산업강국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연구개발 혁신 △살아있는 공학교육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과 정책연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부회장은 경북 영천 출신으로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후 1966년 삼성그룹에 입사했으며 삼성전자 가전부문 사장과 삼성전기 삼성전관(삼성SDI 전신) 사장 등을 거쳤다.

## [한국의 CEO] LG전자 김쌍수 부회장 “자만은 안된다” 끊임없는 혁신



LG전자 김쌍수 부회장의 꿈은 LG전자를 'GCGP (Great Company Great People)'로 만드는 것이다.

회사와 구성원 모두가 최고 역량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 강한 회사 (Great Company)가 강한 인재 (Great People)를 만들고

강한 인재가 강한 회사를 만

드는 조직이 바로 김 부회장이 꿈꾸는 LG전자의 미래다.

김 부회장은 1969년 입사 이후 냉장고 공장장, 리빙시스템사업본부장, DA 사업본부장 등을 맡으며 LG전자의 백색가전을 세계 톱 수준으로 육성한 LG의 대표적인 현장 경영인 출신이다. 그는 뛰어난 리더십과 강한 추진력을 갖춘 최고경영자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대표이사 부회장에 취임할 당시 현장에서 70%를 보내겠다고 선언했던 약속을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다.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시절 백색가전 사업에 대한 외부의 회의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프리미엄급 제품을 개발, 국내외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며 백색가전 분야의 세계일류 기업으로 성장시킨 사례를 들 수 있다.

어떠한 어려움도 강한 신념이 있다면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김 부회장은 1996년 혁신활동 프로그램인 6시그마 활동을 도입, LG전자 혁신활동의 선구자로 인정받고 있기도 하다.

올해에도 대부분의 전자·정보기술(IT) 기업이 고전을 면치 못했던 3·4분기 실적 발표에서 LG전자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6월에는 미국의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100대 IT 기업 가운데 내로라하는 기업들을 물리치고 종합평가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LG전자가 각광받으면 받을수록 그는 임직원에게 '영원한 1등은 없다'는 말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한

다. 경쟁자들보다 몇 배는 앞서 나갈 때, 그리고 절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할 때에야 '글로벌 톱3'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또 부하 직원들은 물론 파트너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특히 강조하는 경영자다. 그는 한 번 신뢰한 사람은 끝까지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스타일이다.

때로는 실패가 있더라도 실패를 거울삼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가 신뢰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다.

## EIAK 활동

### 국제 로제타넷 전문가 대거 방한

차세대 전자상거래 표준인 로제타넷이 해외를 중심으로 꾸준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주에 인텔·소니의 최고 실무 책임자를 포함, 국제 로제타넷 활동을 주도하는 전문가들이 대거 한국을 찾았다.

주요 인사로는 리토 줄레이버 인텔필리핀 전무이사, 시모자키 미치코 소니 공급망관리(SCM) 이사, MY 요우 EC1의 최고경영자(CEO) 그리고 스티븐 유 로제타넷아시아 총괄 부사장 등이다.

이들은 지난 23일 로제타넷코리아와 본회가 공동으로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개최하는 '로제타넷 전자상거래 표준세미나'에서 로제타넷 구축 및 서비스 사례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들 중 가장 주목되는 인사는 리토 줄레이버 인텔 이사, 인텔의 기술개발 감독으로 활동중인 그는 로제타넷 기반 국가간 e관세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 전세계에서 열리는 각종 SCM 콘퍼런스 및 포럼의 주요 초청인사로 꼽히고 있다. 줄레이버 이사는 이번 세미나에서 인텔의 'e관세 프로세스' 구현사례를 소개하였다.



시모자키 미치코 이사는 소니에서 로제타넷을 도입한 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인물로서 소니의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분야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시모자키 이사는 특히 협력사들에 로제타넷의 효용성을 홍보, 로제타넷 보급·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티븐 유 로제타넷아시아 총괄 부사장은 아시아 전지역의 로제타넷 활동을 지원 및 기획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중국·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로제타넷 연계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로제타넷 비즈니스 개발 및 각 나라 표준개발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인텔에서 재직시 공급망 및 고객 e비즈니스 그룹 총감독을 맡아, e비즈니스 로드맵 및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했다. 유 부사장은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전자태그(RFID)와 로제타넷 결합에 따른 시너지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밖에 MY 요우는 싱가포르의 글로벌익스체인지서비스(GXS)와 싱가포르컴퓨터시스템(SCS)가 공동으로 설립한 e비즈니스 벤처기업인 EC1의 CEO. 제너럴일렉트릭(GE)에서 15년간 근무하며 e비즈니스 경력을 쌓았으며, e관세 구현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로제타넷코리아 김성복 사무국장은 “전세계적으로 SCM과 RFID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로제타넷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며 국제 전문가들이 이들 관심분야에서의 로제타넷 적용사례를 소개할 계획이어서 이번 행사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 ‘전자업계 e비즈 CIO 포럼’ 만든다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본격적인 전자상거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업계의 e비즈니스 관련 CEO 및 임원들로 구성된 ‘전자업계 e비즈니스 CIO(최고정보책임자)포럼(가칭)’이 생긴다.

본회(회장 윤종용)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자업계 e비즈니스 CIO 포럼은 전자업계의 정보화 추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대·중소기업의 균형적 정보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발기인 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하였다.

포럼에는 삼성전자·LG전자 등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부품업계의 CEO 및 CIO와 학계,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였고, 포럼은 국내외 전자업계의 정보화 현황을 진

단하고 기업의 애로 및 문제점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 산업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본회 김성복 정책개발본부장 “그동안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으로 경영진의 정보화 인식이 높아졌고 정보화 수준도 전사적자원관리(ERP) 단계에서 공급망관리(SCM) 단계로 진전되고 있지만 전자업계에서는 아직 자체인력부족과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전자업계에서 정보화를 추진하는 책임자들을 모아 기업 애로에 대한 대안을 찾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기업간 정보교환의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내년 전자산업 수출 1,139억달러

내년 우리나라 전자·정보통신 산업은 수출과 내수 모두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유가, 환율 하락, 중국의 경제 속도조정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은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는 지난 달 23일 ‘2005년도 디지털전자산업 경기전망’에서 전자산업 수출은 올해보다 16.6% 증가한 1,139억달러, 수입은 13.9% 늘어난 582억6,200만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내수는 10.8% 신장된 172조6,030억원, 생산액도 11.2% 증가한 238조4,92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감열 본회 부회장은 “국내 디지털전자산업은 기술발전 및 디지털컨버전스가 급속히 이루어짐에 따라 프리미엄급 고가제품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의 이머징마켓 개척과 수출 마케팅 강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전자산업 경기를 이끌었던 수출 증가율(16.6%)이 내년에는 올해(30.8%)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반면 내수 증가율(10.8%)은 올해(10.5%)와 큰 차이가 없어 전반적인 둔화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생산 증가율은 11.2%로 올해 18.2%보다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 디지털 전자산업 경기전망 세미나

24일 코엑스에서 개최한 『2005년도 디지털전자산업 경기전망』세미나에서 디지털전자업계 설문조사 및 시장조사기관의 전망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전자업계는 내년에 기존



수출시장 수요확대에 따른 수출호조, 디지털 TV 등 신제품시장 확대 및 정부의 경기활성화 시책 등에 따른 내수호조로 생산, 수출, 내수가 10%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전자산업 경기전망은 전자업계의 경영계획 수립과 정부의 전자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본회가 주관하여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국내 디지털전자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813개사를 대상으로 『2005년도 디지털전자산업 경기전망』 설문조사를 하였다.

동 조사 결과 조사 응답업체 665개사중 56.8%가 내년도 생산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18.8%는 변화없음, 7.4%는 크게 호전될 것으로 답해 올해보다는 증가폭은 둔화되겠지만, 성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요인으로는 수출증가가 37.7%, 내수증가가 28.8%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올해 수출이 홀로 디지털전자산업의 성장을 주도한 것과는 달리, 내년에는 정부의 뉴딜정책 등 내수활성화 시책에 힘입어 수출과 내수가 함께 디지털전자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는 12.3%가 크게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40.5%는 다소 호전, 37.2%는 변화없음이라고 응답해, 다수의 업체들이 올해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예상했으며, 반 9.2%는 다소 악화 될 것이라는 우려의 견해도 있었다. 증가요인으로는 58.1%가 디지털TV 등 신제품시장 확대를, 32.1%는 수출수요 등 관련산업의 수요확대를 각각 들었다. 수출의 경우 67.3%가



다소호전, 8.2%가 크게 호전될 것으로 보아 다수의 업체들이 기존 수출시장의 수요확대(31.2%), 이머징마켓 등 신시장 개척 성공(26.6%), 기술경쟁력 향상(21.0%)의 이유를 들어 내년도 수출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한편, 내년도 생산단가 전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52.3%는 소폭 증가, 33.2%는 변화없음, 11.4%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응답해 다수의 업체들은 생산단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프리미엄제품 등 고가제품 생산 확대(45.5%), 인건비 등 경영비용 상승(34.4%), 저가 제품 해외생산 확대(9.2%) 등이 주요인 이라고 응답했다.

본회는 이러한 업계의 긍정적인 경기전망을 반영하여 내년도 디지털전자산업 수급전망을 밝히면서, 국내 디지털전자산업은 기술발전 및 디지털컨버전스가 되어감에 따라 프리미엄급 고가제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기업의 이머징마켓 시장개척 및 수출마케팅 강화로 수출은 전년대비 16.6% 증가한 1천139억불, 생산은 전년대비 11.2% 증가한 238조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내년도 정부의 디지털전자산업 발전시책과 세계전자시장, 디지털가전, 컴퓨터, 통신, 전자부품, 반도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주제별 산업전망도 발표하였다. 

### <디지털전자업체 설문조사 결과>

(단위 : %)

구 분	생산전망	내수전망	수출전망	생산단가
크게호전(증가) (15%이상)	7.4	12.3	8.2	2.1
다소호전(증가) (5~15%)	56.8	40.5	67.3	52.3
변화없음 (-5~5%)	18.8	37.2	15.3	33.2
다소악화(감소) (-5~-15%)	16.6	9.2	8.9	11.4
크게악화(감소) (-15% 이하)	0.4	0.8	0.3	1.0

### <2005년도 디지털전자산업 수급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4년	2005년	
		증감률(%)	증감률(%)
수 출(백만불)	97,678	30.8	113,894 16.6
내 수(십억원)	155,836	10.5	172,603 10.8
생 산(십억원)	214,418	18.2	238,492 11.2
수 입(백만불)	51,171	15.1	58,262 13.9

# EIAK Membership

회원사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 태원전자(주)

대표자 : **박진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45, C-607

전화 : 031-605-8000 팩스 : 031-702-7844

<http://www.taewonel.co.kr>

POLYESTER FILM, ALUMINIUM FOIL, LEAD WIRE



## (주)아이엠텍

대표자 : **안창길**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76 시화공단3다 201-4

전화 : 031-497-1791/3 팩스 : 031-497-1792

<http://www.im-tech.com>

이동통신 단말기용 RF 모듈(Antenna Switch Module, Front End Module) 외



## (주)오디티

대표자 : **이 일**

대전시 동구 판암동 239-2 판암 테크노타운 3, 4층

전화 : 042-285-8412 팩스 : 042-285-8416

<http://www.odt.co.kr>

액정표시기, 전자부품, 무역



## (주)오리엔텍

대표자 : **최진호**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350번지

전화 : 031-540-3331 팩스 : 031-544-5555

<http://www.orien-tech.com>

SWITCHING MODE POWER SUPPLY, VIBRATION MOTOR, L.V.T., H.V.T.



## (주)크레타하이테크

대표자 : **이병민**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19-4 유미빌딩 1층

전화 : 02-483-0616 팩스 : 02-483-0604

<http://www.creta.co.kr>

휴대폰 내외장품



## (주)에스세라

대표자 : **성연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384-14

전화 : 031-206-3357 팩스 : 031-206-3358

<http://www.scera.co.kr>

세라믹 레조네이터, 세라믹 필터, 세라믹 디스크리미네이터



## (주)펜맨

대표자 : **김동주**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

전화 : 02-471-7602 팩스 : 02-471-8457

<http://www.penman.co.kr>; [www.quranbook.com](http://www.quranbook.com)

디지털 코란 북, 전자사전, 전자수첩 외



## 데이시스템(주)

대표자 : **이기서**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59-21

전화 : 02-3281-6470 팩스 : 02-3281-6473

<http://www.daysystem.net>

BACK LIGHT UNIT, TFT-LCD MONITOR & TV



## (주)삼우텍

대표자 : **신재두**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90-12 시화공단 3바 316호

전화 : 031-434-7930 팩스 : 031-434-7934

다이캐스팅



## (주)명준정보통신

대표자 : **성정국**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0-1 정로빌딩 2F

전화 : 02-543-9690 팩스 : 02-545-9290

<http://www.alphacams.com>

PC CAMERA, WEB CAMERA, IT CAMERA, USB PC CAMERA,  
CAMERA MODULE